

6월 25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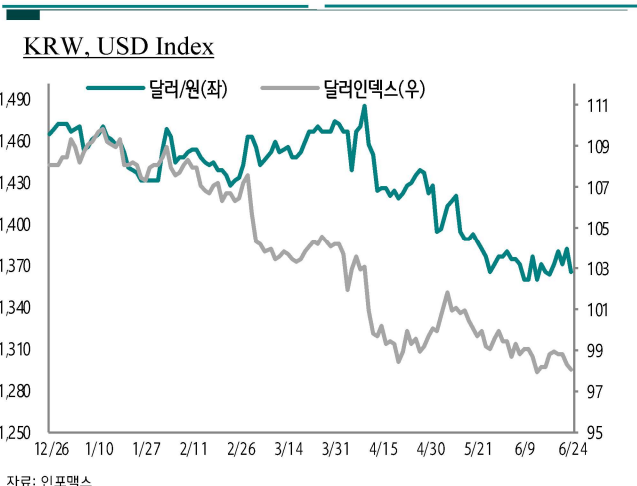
휴전으로
위험선호심리
회복,
달러원
하락
전망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50~1362원
NDF 증가 : 1356.50 (Swap point : -2.40, 1358.90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원은 휴전 후 위험선호심리 회복과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며 하락 전망. 미 6월 소비자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파월 의장의 “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“ 된다는 발언 일부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달러 약세 지지. 휴전 협의로 유가 하락 및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은 국내 증시 상승 반영하며 외국인 유입으로 달러원 하락 전망. 단, 반기 말 결제 수요는 하단 제한 요인. 이에 금일 달러원은 1350원대 진입하며 안정할 전망.
- (전일 동향) 전일 달러원은 이스라엘 이란 휴전 소식에 1369.00원에 개장. 미국 7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유가하락 및 위험 선호 심리는 달러원 하락을 지지하며 1360원 초반까지 레벨을 낮춤. 런던 장 이후 1350원대 진입 시도하다가 1361.40원에 장 마감함.
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	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• 분기말 결제수요	• 이스라엘-이란 휴전 합의 •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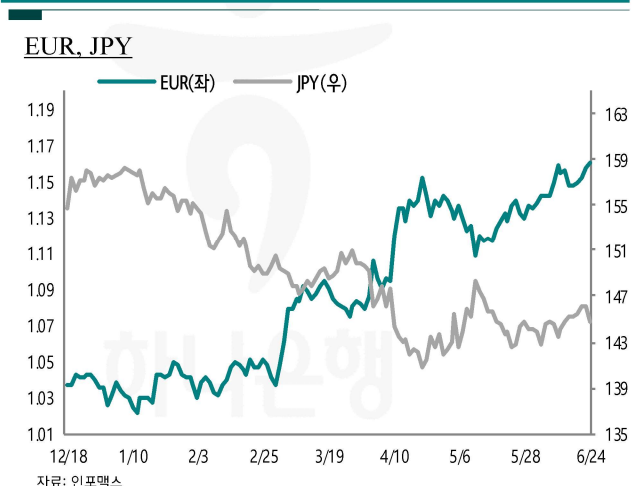


[Global Market]

EUR/USD 예상 : 1.1550~1.1650
USD/JPY 예상 : 144.20~145.20

- (USD Index) 글로벌달러는 이스라엘 이란 휴전 소식과 미 6월 소비자신뢰지수를 소화하며 하락.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한 미 국내금리 하락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 견인하며 -0.366 하락한 97.973기록.
- (EUR) 유로화는 독일 재무부의 3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20%가량 증가 계획 발표에 독일 국채(분트)금리 상승 반영하며 0.0034상승한 1.1608로 21년 10월 이후 고점 기록.
- (JPY) 엔화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소식과 유가하락이 엔화 강세 지지. 엔화는 중동 분쟁 완화로 달러 포지션 정리하는 엔화 매수세 증가로 강세. 이에 엔화는 -1.21 하락한 144.89로 마감.

글로벌 통화 동향		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97.973 (-0.366)	
EUR/USD	1.1608(+0.0034)	1584.49 (-14.93)
USD/JPY	144.89(-1.22)	942.09 (-3.72)
USD/CNH	7.1644(-0.0097)	190.52 (-2.09)



[Macro Analysis]
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+47bp (전일대비 -0.015)

-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스라엘 이란 휴전 소식을 소화하며 위험 선호 심리 반영. 미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신뢰 지수의 예상치 99였으나, 실제 93으로 부진한 지표 발표함. 독일 재무부의 3분기 국채 발행규모 20%가량 증가 계획에 국채 금리 강세. 미 7월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파월 의장은 관망세 유지 스탠스였으나, 시장은 이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며 미 장기 금리 하락. 이에 미 국내금리 2년물은 3.8bp 하락한 3.8270%, 10년물은 5.3bp 하락한 4.2970을 기록. 미 3대 증시 지수 동반 상승하며 다우 1.19%상승, S&P500 1.11%상승, 나스닥은 1.43% 상승하며 마감함. 유가는 종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완화 기대감에 유가 하락.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			
시간	내용	예상	이전
10:00	호주 5월 월간 소비자물가지수	2.3%	2.4%
23:00	미 5월 신규주택판매(MoM)	-5.8%	10.9%

